

如法衣에 관한 研究(I)

— 袈裟色을 中心으로 —

安 明 淑

光州經商大學 衣裳學科

李 春 桂

東國大學校 家政教育學科

A study on the Yeo Bub Eui (I)

— focused on the colour of Kasa —

Myung-Sook An

Dept. of fashion Design, Kwang Ju Kyung Sang University

Chun-Gye Lee

Dept. of Home economics, Dong Guk University

(1989. 4.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Kasa. More specially,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was (a) to determine the reason why dyes the colour of kasa; (b) to examine the kinds of Kasa colour; (c) to provide the dyeing method of Kasa colour; (d) to clarify the prohibited colour and the permitted limit; and (e) to find which and why kasa colour in our country use.

The reason why dyes the colour of Kasa are the following; (a) it differentiates between the white robe in the leading ascetic life of Buddhism at ones home and that of the entering the priesthood. (b) it protects the victim of robbery (c) it discards the attachment to the ownership (d) it lessens the burden of at alms.

The kinds of Kasa's color consist of several one such as 靑(cheung), 黑(heuk), 茜(chun), 木蘭(mokran), and so on.

The three colour among them use as the colour of kasa in the each vinaya pitaka.

The dyeing method of kasa is composed of two ways; One is to dye the whole Kasa; the other is to dye the part of Kasa. Recently, in our country, the red which is the branch of kalasama is the leading colour of Kasa.

I. 序 論

俗世를 떠나 人間의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오로지 參禪과 布教에 專念하는 出家受戒 僧侶의 生活에는 袈裟와 鉢이 그 最初의 基本的 具備條件이었다.¹⁾ 그러므로 袈裟는 僧侶의 가장 重要한 法衣이다.

袈裟의 전래 當初부터 現在까지 총괄적으로 다른 研究가 부족하므로, 袈裟의 여러가지 要素 즉 ① 發生과 由來, ② 種類, ③ 色, ④ 衣次, ⑤ 着裝法, ⑥ 構造, ⑦ 衣規 等에 대해 계속적인 研究를 할 것이며, 특히 金번 연구에서는 袈裟의 色에 대해 주로 살펴보겠다. 袈裟란 色彩名으로 不正色, 壞色이라 하므로 본 研究에서는 壞色의 定義, 壞色하는 方法 및 種類, 壞色の 許容範圍와 禁止色, 우리나라 袈裟色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살폈다.

如法衣란 袈裟의 體, 量, 色 모두 法에 따랐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이다. 논제를 「袈裟에 관한 研究」라 하지 않고 「如法衣에 관한 研究」라 한 것은 석존이 生存 당시 律로서 弟子들에게 나타낸 原則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했기 때문이다.

II. 袈裟色の 定義

1. 壞 色

袈裟色은 석존이 발명한 독특한 僧衣의 色으로 복잡한 색상이다. 색상을 정확하게 表現하는 적당한 色名이 없는 그 자체가 分明이 나타낼 수 없는 色이다. 袈裟는 원래 佛弟子 자신이 스스로 염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染料와 染色方法에 기준이 있으나 개인에 따라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色으로 染色되므로 무수한 色이 있다²⁾고 할 수 있다.

壞色에는 濁의 의미와 染色의 의미가 있는데³⁾ 濁의 의미에서 본 괴색이란 ① 술병 위에 썩은 銅器에서 생긴 녹의 더러운 色, ② 물바닥(河底)의 흙 같은 緇泥로 純黑이 아닌 주석의 녹쓸은 色, ③ 목란의 나무껍질 色 즉 黃味를 띤 褐色 혹은 철의 녹으로 락러워진 色으로 赤土와 赤岩에 의한 赤麤으로 더러워진 色 等を 말한다.

또한 染色의 의미에서 본 괴색은 四分律 제1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만약 比丘가 새옷(新衣)을 얻으면 마땅

히 세 종류의 壞色으로 염색하는 데, 세종류 中 한 가지 色으로 한다. 혹은 靑 혹은 黑 혹은 木蘭이다. 만약 세 종류의 괴색을 쓰지 않고 다른 色을 사용해 新衣를 얻으면 波逸提⁴⁾니라⁵⁾한 것처럼 靑 黑 木蘭 등의 色을 말한다.

諸律에서는 대체로 袈裟色을 三種으로 나누고 있다. 즉 四分律에서는 靑 黑 木蘭, 十誦律에서는 靑 泥 茜, 有部律에서는 靑 泥 赤, 巴利律에서는 靑 泥 暗褐色 等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상 三種色을 表示한 것이지 가사색을 三種으로만 限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袈裟色은 色彩學上으로 仔細히 色別해서 具體적인 상황에 따라서 赤色이 主가 되어 염색되었으면 赤濁色 계통의 色이라 하고, 黃色이 主로 되었으면 黃濁色 계통이라 하고, 褐色이 主로 되었으면 褐濁色 계통이라 하고, 黃色과 褐色이 同一한 정도로 염색이 되었으면 濁黃褐色 계통이라 하고, 赤色과 褐色이 거의 同一한 정도로 염색이 되었으면 濁赤褐色이라고 表現할 수 밖에 없는 것⁶⁾이다.

오늘날 袈裟란 法衣 위에 입는 일종의 장식을 나타내지만 원래 뜻은 赤褐色의 것이다. 계율이 규정한 것으로는 衣의 色은 靑, 黃, 赤, 白, 黑의 五正色과 緋, 紅, 紫, 綠, 碧의 五間色을 사용하는 것이 禁止되었고, 다만 茜, 泥, 木蘭의 三色만이 허용되어 이것을 三如法色이라 불렀다. 그러나 靑, 黃, 赤, 黑 木蘭을 五如法色으로 하는 說도 있는데, 이는 木蘭色이 黃, 紅, 赤의 雜色이기 때문에 가사야(kasāya)란 茜 泥 木蘭色이라고 하는 것⁷⁾으로 된다.

결국 法衣의 通稱으로 부르는 kasāya는 이 赤血色 계통의 彩色의 명칭⁸⁾이다. 一切經音義에서 「袈裟란 赤血色衣를 말하는데 외국에서는 비록 五部가 다르다고는 하나 모두 赤色을 입고, 靑이니 黑이니 木蘭이니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을 물들이는 데 差異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⁹⁾라고 한 것처럼 赤血色이 法衣의 기본색이다.

2. 壞色하는 目的

袈裟色을 一名 壞色이라고 했으며, 이처럼 壞色을 制定한 것은 질투, 사치 等の 상태를 생기지 않게 하고, 同時에 다른 것과 확실히 구분해, 佛弟子의 表示로 한 것이 主要한 目的¹⁰⁾이다.

그러므로 比丘의 옷을 袈裟色으로 염색하는 理由를 보면 첫째, 在家의 白衣와 구별하고 出家의 옷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다. 즉 가사색의 옷을 입은 사람은 佛敎의比丘 뿐으로, 袈裟를 입고 나쁜 일이나 나쁜 마음을 삼가도록 했던 것이다. 둘째, 袈裟色으로 물들이면 在家人의 옷이 못 되므로 가치가 없어져 도난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¹¹⁾이다. 셋째, 所有의 집착을 덜기 위해서 이다. 즉 승려의 몸에 입는 衣의 색은 그것에 의해 貧慾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색으로 더러워진 濁한 색¹²⁾이어야 한다. 네째, 施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다.¹³⁾

袈裟色이 다른 곳에서 不正色이나 壞色으로 칭해지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지 않은 탁한색이기 때문이고, 僧衣에 이 아름답고 깨끗한 색을 피하는 것은, 역시 색에 대한 貧慾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자이나교의 白衣派가 白으로써 聖스런 색으로 보고, 반대로 佛敎가 僧衣에 白을 회피하는 것은 色彩에 관한 가치관의 差異일 것¹⁴⁾이다.

그러므로 衣服을 袈裟色으로 물들이는 것은 生活態度나 思考方式도 袈裟色으로 물들이는 것으로서 衣, 身, 心 모두 佛法一色으로 完全히 염색하여 道에 專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다.

III. 壞色의 方法

袈裟를 염색하는 方法에는 衣財 전체를 염색하는 染淨과 袈裟의 一部에 작은 汚點을 붙이는 點淨 두 가지가 있으며¹⁵⁾, 染淨과 點淨에 대해서 사용된 염료의 종류와 염색 方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染淨(作爭)

衣財 전체를 염색하는 색에 대해서는 佛法本來의 입장에서 보면, 색 자체에 본래 좋고 나쁨은 없다고 한다. 다만 살아있는 人間이 佛法을 行하는 데 있어, 僧衣로서 어울리는 색이 袈裟色이며, 袈裟色으로서 본질적인 것은 「袈裟色이란 名刹를 버린 색」이라는 것이다. 즉 「名刹를 버린 색」이란 衣服을 염색하는 同時에 生活態度와 思考方式도 袈裟色으로 염색하는 것으로, 옷도 몸도 마음도 모두 不法一色으로 염색하는 것¹⁶⁾을 의미한다.

衣를 염색하게 된 것은 六群比丘가 환한 純白色의 新衣¹⁷⁾를 입고 있었는데 많은 信者가 이상히 생각하고 王이나 貴族같다고 흉을 보았다 한다. 一般社會人이 白色을 많이 입고 있는 印度에서도 환한 純白色의 新衣는 高貴한 사람들만이 입는 의복이었다. 이것이 起因이 되어

新衣戒가 制定되었고¹⁸⁾, 新衣를 얻으면 염색을 하게 되었다.

1) 염료의 종류

처음에 比丘들이 사용했던 염료로는 牛黃, 黃土 등이었으나 衣의 색이 보기 좋았으므로 세존이 六種類의 염료 즉 樹根, 樹幹, 樹皮, 葉, 花, 果를 허용하였다¹⁹⁾.

그리고 각 律典에 나타난 新衣에 염색하는 염료를 보면 三種類의 壞色을 들고 있다. 즉 四分律^{16²⁰⁾}, 曇無德出四分僧戒本²¹⁾, 摩訶僧祇律^{18²²⁾}, 五分律^{9²³⁾}에는 靑黑木蘭의 三色을 들고 있고, 十誦律^{15²⁴⁾}에는 靑泥 茜을,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권39²⁵⁾에는 靑泥 赤을 들고 있다. 이와같이 律文에 정해진 三種의 壞色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靑; 靑의 壞色을 염색하는 데는 銅靑, 長養靑, 石靑이 있는데²⁶⁾, 보통 靑의 壞色은 「靑黑色(鐵色)」이라고 불리워 지는 색²⁷⁾이다. 靑의 壞色으로 銅靑이란 銅器로서 菩酒瓮의 위를 덮어 그릇에 입힌 것으로 人造綠靑이고, 長養靑이란 藍의 淸진된 것을 이용해 염색하는 것이고, 石靑이란 空靑으로 銅의 化學物인 礦物을 顔料로 한 것으로 岩紺靑이라 한다.

② 黑; 黑의 壞色에는 名字泥와 不名字泥가 있고²⁸⁾, 律에는 주로 「泥染」에 의한 것으로 보통 진한 靑색을 가리킨다²⁹⁾. 名字泥란 呵梨勒, 醃醃勒, 呵摩勒을 鐵 그릇 안에 습한 것이고, 不名字泥란 實泥, 池泥, 井泥 등의 모든 泥를 말한다. 律에 보면 純黑은 분명히 如法色이 아닌데, 日本은 옛부터 黑衣와 黑袈裟는 修行 중의 僧侶가 입는 僧衣로서 인정하였다.

③ 木蘭; 남방산의 목란이라고 하는 香木의 樹皮를 염료로서 염색한 색으로, 색채학적으로 보면 목란수와 日本의 檜와, 그 「樹皮의 색」이 비슷한 것으로, 木蘭色을 檜皮色, 木色, 樹皮色 등으로도 부르지만 과연 목란수로 염색된 색이 檜皮色일까 여떨까는 문제이다. 靑이나 黑에 비교해, 불제자들이 자주 사용한 색으로 옛부터 이것을 색名으로 나타낼 때는 黃赤色, 赤黑色, 黃黑色, 紫色 등으로 부르며, 이런 것들은 모두 褐色 계통에 속한다³⁰⁾. 또한 木蘭色은 呵梨勒, 醃醃勒, 呵摩勒이니 生鐵上에서 이를 같이 點淨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곧 木蘭色이다³¹⁾.

④ 茜; 茜草의 草根을 염료로서 염색한 색으로, 茜草는 印度, 中國, 日本 등에서 옛부터 귀중한 식물성 염료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袈裟에만 사

용되어진 염료는 아니다. 茜染을 朱色, 緋色 등으로 부르긴 하나 人造의 朱 처럼 붉지 않고 비교적 黃味를 띤 붉은 赤橙色 등으로 불리워 진다³²⁾.

2) 염색방법

염색하는 方法에 대하여 十誦律15권³³⁾에는 “靑·泥·茜의 三種 壞色으로 염색하되 靑衣를 얻으면 二種類로 淨하니 泥나 茜이요, 泥衣를 얻으면 역시 二種類로 淨하니 靑이나 茜이요, 茜衣를 얻으면 역시 二種類로 淨하니 靑이나 泥요. 黃衣나 赤衣나 白衣를 얻으면 三種類로 淨하니 靑·泥·茜이니라”하였다. 또한 智旭의 梵網經合註 7권³⁴⁾에도 “袈裟는 染衣이며 壞色이고 出家 衣服의 모든 이름이다. 色에는 靑 黃 赤 黑 紫色이 있으며, 律制 三種 壞色하니 靑 黑 木蘭이다. 今制는 五種이다. 彌沙塞部에 의하니 靑色衣에는 黑이나 木蘭으로 點하고, 木蘭衣에는 靑 黑으로서 點하니 이를 壞色이라”한다 하였다. 龍谷의 불교大辭彙에는 “염색이란 單純色에다 他色을 가하여 파괴하나니 靑·泥·茜의 三色 中에 靑色の 바탕에는 泥와 茜의 二色으로 또 泥色 바탕에는 靑과 茜의 二色으로, 茜色 바탕일 경우에는 靑과 泥 二色을 더해 염색한다” 하였다³⁵⁾.

그러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 五大色(單純色)을 피하고 둘째, 三種 壞色을 사용하되 바탕색이 아닌 다른 二色으로 염색하였다.

또한 이와는 다른 염색방법으로 唐賢首의 法藏菩薩戒本疏에 “袈裟는 소위 不正色이니 소위 靑 黃 赤 白 黑의 五色으로 서로 상호 염색하여 不正色을 이루니 소위 壞色이다”³⁶⁾하였고, 明曠의 天台菩薩戒疏에도 “色에 靑 黃 赤 黑 紫의 五色이 있어, 서로 염색하니 곧 不正色이라”하였다³⁷⁾. 앞의 염색방법과는 다르나 어쨌든 壞色을 만들어 착용하고, 단순색이 아니라 色을 부수어 더러운 色으로 염색해 입는다는 것은 같다.

2. 點淨

衣財 전체를 염색하는 「染淨」에 대해, 袈裟의 一部에 작은 汚點을 붙이는 「點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다지 일반적이진 않지만, 律文에도 나타난 것처럼 중요한 것이다³⁸⁾.

點淨을 하게 된 정신적 의미로는 五分律에 의하면 원래 點淨이란 다른사람(外道·在家)의 所有物과 구별하기 위한 表示로서 붙이는 것이나, 表示로서 만이 아니라 점점 「淨」의 쪽으로 중요성을 두게 되었고, 오늘날은 본

래의 목적인 表示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고, 「淨」의 의미만으로 되었는데 汚點을 붙이는 것을 왜 「淨」이라고 했는 지에는 佛法 獨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佛弟子의 生活은 원래 儉素枯談한 生活이 원칙이었으나, 그런 生活 속에서도 때로는 새로운 것과 좋은 것을 行하는 수도 있다. 그때 그것을 당연히 여겨 어떤 망설임 없이 사용하는 것은 佛弟子로서의 겸허한 태도는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것은 가능한한 사양해 삼가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에서 형태 만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하고, 조금 더러운 고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겸허한 마음의 준비가 나타난 것이 點淨이다. 汚點이 있는 것을 오히려 깨끗하다고 하는 佛法의 정신을 잘 음미해야 한다.

點淨의 方法으로 「薩婆多論」에 보면 일부터 淨을 하는 故作淨과 자연스럽게 淨이 되는 不故作淨 두가지가 있으며, 不故作淨의 대표적인 예로는 새가 흙탕밭로 가사를 오염시키는 것 같은 것이다.

點淨의 色은 「方服歌讚儀」에 「色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佛弟子의 點淨의 法」이라고 한 것처럼 色은 染淨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點淨한 것을 알 수 있도록 衣財의 色과 다른 色을 사용한다.

點淨의 數와 크기에 대해서 「摩訶僧祇律」³⁹⁾에 淨을 할 때는 크기도 작게도 하지 않으며 極大는 四指로 한정하고 極小는 완두 크기와 같다 하였고, 點淨을 하는 것도 並作⁴⁰⁾하지 않고, 華形처럼 淨을 하지도 않는다. 또 「方服歌讚儀」에 “點淨의 작기로는 참깨 정도고 크더라도 콩 입자 보다는 크지 않다”한 것처럼 결국 淨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크기와 수 라면 좋은 것으로, 거기에 확실한 규칙은 없다고 했다.

點淨의 위치에 대해서도 「摩訶僧祇律」에 “모서리(角)에 點으로 淨을 만든다”라고 있어, 보통 세로의 緣 위쪽에 點淨시킨다.

IV. 袈裟色の 許容範圍와 禁止色

1. 許容範圍

如法衣의 색상은 漢魏 頃에는 袈裟라고 하면 赤色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赤色이 많이 使用되었다. 이것은 壞色 中 木蘭色(Kālasāma) 訶梨勒 그 외의 나무 열매를 使用해 生織上에서 갈아 착색한 것으로, 대개는 黃褐色인

데, 다소 鐵分이 作用하면 약간 紫褐色으로 되고, 또 黃褐色이 약간 짙어지면 赤味를 증가해 赤褐色으로도 칭해지는 色이다. 즉 壞色인 Kālasāma가 발전해 赤色이 되고, 또 남방불교에서는 Kālasāma가 발전해 黃色⁴¹⁾으로 되었다.

律典에 의거한 袈裟色하면 壞色이라고 할 정도로 袈裟色으로는 壞色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壞色 착용한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律에 나타난 袈裟의 色으로 壞色 뿐 아니라 黃衣, 靑衣 등도 着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처님 當時는 靑黃五綵와 眞紫上色(五間色)은 心身을 현란시켜 수행에 방해가 되고 또한 俗人들이 탐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억제하고 三種 壞色 만을 사용하게 했으나 그후 時代의 변천과 그 나라 기후에 따라 變化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⁴²⁾.

또한 正法眼藏「袈裟功德」에 보면 袈裟는 靑 黃 赤 黑 紫의 色으로 염색하며, 어떤 경우에도 壞色(單色이 아닐 複色)으로 하고, 석존은 항상 피부색(肉色)의 袈裟를 입으셨다고 하며 이것을 袈裟色이라 하였다⁴³⁾.

舍利佛問經에 의하면 “摩訶僧祇部에서는 衆經은 勤學하여 眞義를 宣講하여 본에 處하고 中에 居하므로 응당히 黃衣를 입어야 하고, 曇無屈多迦部에서는 理味를 통달하여 開導利益하며 殊勝을 表發하므로 마땅히 赤衣를 입고, 薩婆多部에서는 博通敏達하여 法化를 인도하므로 응당히 皂衣를 입고, 迦葉維部에서는 勇猛정진하여 衆生을 攝護하므로 마땅히 木蘭衣를 입고, 彌沙塞部에서는 禪思로 入徹하여 幽密을 究暢하므로 靑衣를 입는다”⁴⁴⁾라고 하였다.

日本의 경우도, 佛敎가 전래된 初期에는 僧尼는 木蘭色, 靑碧, 皂色, 黃 및 壞色 등의 衣를 입는 것을 許容하고, 다른 色은 안된다고 養老의 律令에 나타나 있다⁴⁵⁾.

四分律 19에 부처님께서 釋迦搜尼拘類中에 있을 때에 難陀尊者의 身長이 부처님 보다 8寸(佛四指)이 낮았으므로 멀리서 難陀가 음을 보고 대중들이 부처님으로 誤認하여 마중나가는 예가 빈번하므로 부처님은 이러한 혼돈을 막기 위하여 難陀에 限해서만 黑衣를 입게 하셨다⁴⁶⁾.

2. 禁止色

比丘에게 袈裟色으로 禁止된 것을 살펴보면, 석존 당시 “比丘들이 純色의 靑 黃 赤 白 黑色의 衣 착용을 부처

님께 청하였으나 부처님께서서는 純色의 착용을 하지 말라”⁴⁷⁾하셨다. 또한 薩婆多毘尼婆沙 권 8에 “色에는 五大色이 있으니 靑 黃 赤 白 黑이다. 이 五大色을 만일 하나씩 각각 염색하면 突吉羅⁴⁸⁾이며 또한 그것으로 옷을 짓더라도 受하지 못하며 또한 입지 못한다. 만일 五大色衣을 얻어 뒤에 다시 如法色으로 改染하면 受持할 수 있으나 만약 먼저 如法色으로 만들고 뒤에 五大色으로 파괴하는 者는 受持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五大色外에도 純色의 黃藍, 鬱金, 落沙, 靑黛 및 모든 靑도 純色에 속하므로 입지 못하게 한 것⁴⁹⁾으로 五大色과 單純色의 衣 着用을 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南傳大藏經 제 3에 여섯 무리 比丘들이 眞靑衣, 眞黃衣, 眞赤衣, 眞茜衣, 眞黑衣(이상은 五大色), 眞紅藍色衣, 眞落葉衣(이상은 間色)를 입었었는데, 세존께서 이를 보고 말씀하시되 “比丘들이여 위와 같은 色의 衣를 입지 말라. 만일 입는 者는 突吉羅에 떨어진다”⁵⁰⁾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袈裟色으로는 五大色과 單純色을 피하여, 色을 파괴한 色으로 一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둡고 탁한 色으로 하여 道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고, 比丘들에게 허용된 袈裟의 色도 결국 壞色 以外의 것은 禁한 것으로, 袈裟色은 곧 壞色임을 알 수 있다.

V. 우리나라의 袈裟色과 그 의미

色彩란 人間의 감각, 사고, 정서의 혼합체로서 그 民族과 時代 변천에 따라 모든 생활상을 정직하게 나타내 주는 상징⁵¹⁾이므로 옷에 있어서 色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袈裟色을 살펴보면, 三國時代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赤色 계통이 主를 이루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國敎가 佛敎로 신봉되면서 엄격한 계층에 의한 袈裟가 구별되었지만 그래도 主를 이룬 것은 赤色이라 할 수 있다. 신난숙⁵²⁾은 우리나라 袈裟色을 黃色과 赤色이 主가 된다고 보고 그 理由를 우리나라 僧侶가 貴族 中心에서 생활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하였다.

그러나 印度는 黃金色, 中國은 紅色 袈裟를 주로 着用하는데, 그 理由는 中國에서는 黃金色이 天子色이므로 天子色을 袈裟色으로 할 수 없어 紅色 袈裟를 착용하였고, 우리나라는 中國의 영향을 받아 紅色을 着用⁵³⁾하였다. 여기에 우리의 赤色에 관한 民俗信仰이 결부되어 계속 赤色이 使用된 것 같다.

赤色에 관한 우리나라 民俗思想은 다음과 같다. 醬油를 담그고 고추나 목탄을 띄우는 것은 형태적인 것 보다 色彩的 呪術 禁忌 信仰에서 유래⁵⁴⁾한 것이며, 고추나 목탄의 色彩性이 出産時와 醬油에 까지 전용된 것은 저항력이 박약한 嬰兒의 生命을 거신의 손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 한다. 또한 결혼날 신부의 얼굴에 연지를 찍는 것, 冬至에 팔죽을 먹는 것, 부적을 꼭 붉은 글씨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다⁵⁵⁾.

또한 悲華經에는 “귀신이 있다해도 袈裟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⁵⁶⁾고 한 것처럼 제일 먼저 외형상 눈에 띄는 것이 색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袈裟의 색이 赤色인 것은 色彩的 呪術 禁忌 信仰이 가미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赤(紅)色 袈裟가 주로 이루므로 壞色 木蘭色 계통인데 색이 일정치가 않고 약간씩 다르다. 그 理由는 어디서 袈裟佛事하느냐에 따라 같은 종파라도 色の 差異가 있는데, 어느 色을 어느 분량 만큼 넣으라는 일정한 규정이 없어 佛事時마다 어느 색이 조금 더 들어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色을 내려면 종단에서 통제를 하여 一定하게 한 곳에서 袈裟의 色을 만들지 않으면 不可能하나, 佛教에서는 佛教의 教理가 나타내듯이 획일적인 것을 배척하고 자율적인 것을 지향하므로 이러한 자유로운 색상이 그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측⁵⁷⁾과, 이와는 반대로 袈裟를 제대로 傳授하는 것이야 말로 佛教를 제대로 이어가는 것과 같다는 袈裟功德를 주장하는 측⁵⁸⁾도 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지는 스님들 모두가 합의 아래 올바른 袈裟 傳授가 되어야 할 것이다.

VI.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袈裟色은 壞色이며, 壞色으로 염색하는 目的은 世俗의 욕심을 끊고 道에 專念할 수 있기 위해서 衣, 身, 心 모두 佛法一色으로 染色하는 것이며, 染色方法에는 전체를 염색하는 染淨과 일부분을 염색하는 點淨이 있는데, 點淨은 일반적이지 못하다. 또한 袈裟色으로 허용된 색상은 壞色, 赤色, 靑衣, 黃衣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색이고, 純色이나 五大色(五正色)의 사용은 禁止되었다.

袈裟의 色은 어떤 특정한 색깔에 규애될 것 없이 實用品으로서 순수한 색깔에 있어서 北傳의 五部律이 어떻느니 南傳의 巴梨律이 어떻느니 할 것 없이 종단에 統一된

色으로만 입으면 될 것 같다는 간소화론도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正式的 宗教服으로 위의를 갖추어 信心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으면 한다.

本 研究를 통해 석존 당시에 袈裟가 制定된 이후, 宗教服이라는 特殊性과 보수적인 性格 때문에 變化없이 現在에 이르렀다는 유구한 전통성과 석존 당시 제정된 袈裟色이 遺物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 律에 나타난 袈裟色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알 수 있었다.

미흡하나마 袈裟의 色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袈裟에 관한 깊은 연구를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參 考 文 獻

- 1) 이순덕, 法衣에 관한 研究, 영남대 대학원, 5, (1982)
- 2) 沢木興道 감수 久馬慧忠 편, 袈裟의 研究, 大法輪閣版, 45, (소화 42年)
- 3) 井筒雅風, 法衣史, 雄山閣出版, 16, (소화 57年)
- 4) 波逸提(Payattika·파아얏티카): 單墮라 번역되며, 物質과 관계없이 저지른 失德임. 참회하면 되나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뜻이다.
- 5) 四分律藏上, 海印寺叢林, 407~408, (佛紀 2517年) 「若比丘得新衣者. 應三種色中隨一一種. 壞是衣色. 若靑若泥若茜. 若比丘不以三種壞衣色著新衣者 波逸提」(大正 新修大藏經 22권 No 1428, 676)
- 6) 유영자, 한국의 승복에 대한 연구-가사를 중심으로- 건국대, 10, (1979)
- 7) 工藤成樹, 佛教 と 衣生活- ② 一色, 衣生活研究, Vol 9 No 2, 50, (1982)
- 8) 大正新修大藏經 24, 根本說一切有部一羯磨9 No 1453, 大正一切經, 495, (大正15年)
- 9) _____ 54, 一切經音義 59 No 2128, 大正一切經, 699, (소화 3年)
- 10) 沢木興道감수·久馬慧忠 편 前掲書, 44.
- 11) 이회익, 불교의 교단생활, 불광출판부, 39, (1984)
- 12) 工藤成樹, 前掲論文, 51
- 13) 이지관,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寶蓮閣, 552, (1973)
- 14) 工藤成樹, 前掲論文, 50
- 15) 平川彰著, 律藏의 研究, 山喜房佛書林刊, 739, (1982).
- 16) 沢木興道감수·久馬慧忠 편 前掲書, 48.
- 17) 新衣; 淨法을 하지 않은 것으로, 故衣라 해도 처음 얻는 것일 때는 新衣라 하며, 衣體가 새로운 것, 새롭게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을 말한다.
- 18) 沢木興道감수·久馬慧忠 편, 前掲書, 42.
- 19) 南傳大藏經 3권, 律藏 3, 대장출판주식회사, 499, (소화 13年)
- 20) 大正 新修大藏經 22권, No 1428, 676, (大正 15年)

- 21) _____, No 1430, 1027, (大正 15年)
 22) _____, No 1425, 369, (大正 15年)
 23) _____, No 1421, 68, (大正 15年)
 24) _____, No 1435, 109, (大正 15年)
 25) 西本龍山譯, 口譯一切經, 律部 21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권 39, 대동출판사, 117, (소화 13年)
 26) _____, 口譯一切經, 律部9, 摩訶僧祇律 권 18, 대동출판사, 170, (소화 5年)
 27) 沢木興道감수·久摩慧忠 편, 前掲書, 46.
 28) 大正 新修大藏經 22권, No 1425, 369
 29) 沢木興道감수·久摩慧忠 편, 前掲書, 46.
 30) _____, 前掲書, 47.
 31) 大正 新修大藏經 22권, No 1425, 369.
 32) 沢木興道감수·久馬慧忠 편, 前掲書, 47.
 33) 大正 新修大藏經 23권, No 1435, 109.
 34) 속장경 60권, 梵綱經合註 7권 釋經 上下, 755, (불기 2523)
 35) 이지관, 前掲書, 550에서 재인용.
 36) 釋日陀 편, 沙彌律儀要略, 通度寺 金剛戒壇, 203, (불기 2992)
 37) 이지관, 前掲書, 550에서 재인용.
 38) 沢木興道감수·久摩慧忠 편, 前掲書, 49.
 39) 西本龍山譯, 口譯一切經, 律部 9, 171.
 40) 並作: 2, 4, 6, 8...등 偶數로 하지 않고 1, 3, 5, 7...등 奇數로 하여 點淨하는 것을 말함.
 41) 井筒雅風, 袈裟史, 웅산각출판, 31, (소화 57年)
 42) 임영자, 한국의 불교 복식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46, 147, 121~122, (1980)
 43) 中村宗一, 全譯 正法眼藏 권4, 誠信書房, 76, (소화 57年)
 44) 大正 新修大藏經 24권, No 1465, 900.
 45) 井筒雅風, 袈裟史, 46.
 46) 大正 新修大藏經 22권, No 1428, 695.
 47) 西山龍山譯, 口譯一切經, 律部 14, 134.
 48) 突吉羅; 惡作·惡語라 번역하며, 極히 가벼운 罪로서 그 중목이 많으므로 百衆學이라고도 한다. (사분율장 상, 주해 p 1)
 49) 大正 新修大藏經 23권, No 1440, 556.
 50) 南傳大藏經, 前掲書, 533.
 51) 배만실, 한국전통색채론, 이대논총 51집, 249, (1986)
 52) 慎蘭淑, 우리나라 가사에 대한 연구, 이대, 1, (1979)
 53) 조계사 無盡藏 스님 말씀, 1988, 12. 14.
 54) 임동권, 한국민속학 論巧, 集文堂, 94, (1982)
 55) 홍은규, 염직물에 나타난 한국인의 색채감정 및 색채 조화에 관한 고찰—이조 후기 의상을 中心으로—홍익대, 24, (1982)
 56) 이지관, 比丘尼戒律研究, 大學出版部, 547~554, (1977)
 57) 인환스님 말씀, 동국대 불교대 학장님, 1988, 12. 19.
 58) 中村宗一, 前掲書, 袈裟功德 참조.